

# 2013년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회의록

2013. 2

**행 정 국**  
**(행 정 과)**

작성자

과명: 행정과

담당: 허은정  
(☎2133-5818)

팀장: 조영준  
(☎2133-5812)

과장: 황인식  
(☎2133-5800)

#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회의록

## 〈회의개요〉

- 일 시 : 2013.2.6(수) 14:00~16:30
- 장 소 : 신청사 3층 소회의실①
- 참 석 : 총 9명(당연직 5명, 위촉직 4명)
  - 당연직 : 서울시 행정국장, 서울시 정책기획관, 성북부구청장, 강서부구청장, 금천부구청장
  - 위촉직 : 김선갑, 이형석, 김귀영, 조경애
- 안 건
  - 2013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선정 심의
- 심의결과
  - 2013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선정 : 15개사업, 80억원

## 주요발언 내용

### 〈간사〉

-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.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〈000 위원 등〉

-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

### 〈간사〉

- 위원님들의 추천에 따라 행정국장님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겠습니다.

## 〈위원장〉

- 위원장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회의는 자치구 인센티브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. 인센티브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먼저 간사의 사업 선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센티브 대상사업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.

### 《 사업 선정계획 설명 》

## 〈위원장〉

- 실무위원회 결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# 《 실무위원회 결과 보고 》

## 〈위원장〉

- 실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통해 25개 사업 중 17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. 사업별 보고는 생략하고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.
- 사업 설명을 들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각각 10개의 사업을 선정을 해주시면 그걸 합산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,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개수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.
- 사업비는 80억이며, 사업별 예산을 조정해 배분하게 되는데 원칙을 정해서 실무진에 위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

### 《 사업부서 담당자 입장 》

-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관 주도 사업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. 시에서 마을공동체 예산 지원이 나가는 것과 별개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?

### 〈담당팀장〉

- 마을공동체 예산은 자치구를 통해 주민에게 나가는 예산이고, 인센티브평가를 통해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. 시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치구에서 주민들을 독려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자치구 보완의견처럼 마을공동체 활동에 구마다 격차가 있습니다. 격차를 줄여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### 〈담당팀장〉

- 자치구 과장 회의, 마을활동가 및 담당직원 워크숍 등을 통해 자치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합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마을공동체 사업이 작년에 시작되었는데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. 시행 초기에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지만 관 주도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민 참여에 대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함께 누리는 스마트 서울 만들기 사업은 시와 자치구가 각자 계획에 따라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평가하는 이유는?

### 〈담당팀장〉

- 정보화 사업은 기술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서 우수사례나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 이유로 인센티브 추진이 필요합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민원행정 만족도 사업은 '08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인데 인센티브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?

### 〈담당팀장〉

- 120 통합상담과 직결되는 분야로 자치구 구정상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. 또 하나는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분야에 대한 행안부 평가를 받고 있어 자치구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여성이 안심하고 누리는 희망 서울 사업은 여성가족정책실 사업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핵심적인 사업만 추려낼 필요가 있습니다.

### 〈담당팀장〉

- 반영하겠습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청렴도 평가는 정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중복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건지?

### 〈담당팀장〉

- 권익위원회 평가는 민원인, 직원 설문조사로 하게 됩니다. 청렴도 평가는 그것 외에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많은 자치구에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.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달라는 것이 아닐지?

### 〈담당팀장〉

-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목표치가 높아지긴 했으나 목표가 높더라도 자치구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### 〈000 위원장〉

- 사업 지표가 너무 많습니다. 평가받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지표가 많은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중점사업만 추려낼 필요가 있습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보건소 사업 평가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니 주민참여부분을 지표에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### 〈담당팀장〉

-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평가에는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올해 복지분야 가장 역점사업이 뭘니까?

### 〈담당팀장〉

-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, 기초보장수급자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.  
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배점을 가장 높게 두고 있습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자치구별 민간협력체계 구축이나 자원 발굴 부분을 포함하면 어떻습니까? 자치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 사업을 하기 역량이 모자란 자치구도 그런 부분에서 만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옥외광고물 분야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.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입니까?

### 〈담당팀장〉

- 최근 5년간 노력으로 외국 수준에 근접했지만,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몇 년간 더 열심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문화관광분야 사업은 사업명이 짜임새가 없어요. 너무 방대합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문화도 그렇고, 관광분야도 자치구별로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. 이런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.

### **<담당팀장>**

- 전년도 평가 결과 문화인프라가 우수한 자치구보다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치구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자치구별 인프라 차이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중치를 두려고 합니다.

### **<000 위원>**

-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. 깨끗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 만들기 평가지표에서 재활용, 음식폐기물 감량 등에 대한 배점을 훨씬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

### **<000 위원>**

- 희망기업 구매 실적에 대한 평가는 단위사업으로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. 희망기업 육성, 지원과 같은 정책과 어우러지면서 실적을 일부 포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

### **<담당팀장>**

- 희망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자치구 노력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, 공공조달 종합정책을 수립해서 계약제도 개선방안도 포함하고자 합니다.

### **<000 위원>**

- 교육분야 평가 지표를 보면 주5일 수업 실적 이런 부분이 정량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자치구마다 여건이 다른데 이런 부분은 비율에 의해 평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



### 〈담당팀장〉

-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치구 의견을 들어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자치구 예산확보비율에 대한 평가는 부적정해보입니다. 있는 자원으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가지고 평가해야 합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안전도시 만들기 평가지표를 보면 중앙부처 평가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. 행정 편의주의 아닌가요?

### 〈담당팀장〉

- 중앙부처 평가로 인한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고, 그 평가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 나눠서 지표로 담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소방방재청 등의 평가는 전문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
### 〈000 위원〉

- 걷기편한 행복거리 사업과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은 통합을 했는데 전, 후 평가지표를 보면 단순히 50:50으로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. 사업 중요도에 따라 비중을 조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.

## 〈000 위원장〉

- 자원봉사 분야는 안오셨습니까?

## 〈간사〉

- 자치구 신청사업입니다.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주셨고, 시 주관부서에서도 이미 정착된 사업이라는 의견이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
## 〈000 위원〉

- 뉴타운·재개발 지역은 구별로 물량이 천차만별입니다. 총량적인 평가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타당도가 떨어집니다.

## 〈담당팀장〉

- 뉴타운·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과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.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정비구역이 없는 구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해서 평가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.

## 〈000 위원장〉

- 25개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. 각 위원님께서서는 나눠드린 표에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《 위원별 사업 평가표 집계 》

**<000 위원>**

- 동점표가 있는 공동 9위까지가 4명의 위원님이 선택하신 사업입니다. 여기까지 선정하면 어떻습니까?

**<000 위원장>**

- 하나의 실·국에서 2개의 사업을 하는 곳이 4개 실·국입니다. 어떻게 조정하면 되겠습니까?

**<000 위원>**

- 사업비를 조정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? 표를 많이 얻었는데 빼기도 어렵습니다.

**<000 위원장>**

- 이렇게 15개 사업으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. 전체 예산이 80억인데 어떻게 배분할지는 실무선에 위임을 해주시면 정해주신 원칙과 중요도를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**<000 위원>**

- 사업별로 지표를 줄이는 것은 확실히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.

**<000 위원장>**

- 네,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**<000 위원>**

- 지표의 수도 중요하지만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. 지표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통해서 지표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.

## **<간사>**

- 검토하겠습니다.

## **<000 위원>**

- 사업비를 전부다 활용하기 보다는 5%정도 예비비를 뒀다가 나중에 필요가 생겼을 때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지 싶습니다.

## **<000 위원장>**

-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. 위원님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.